

#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의 척추골절 유무에 따른 신체적 기능수준,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증상

차경숙(성빈센트병원 감염관리실)

김순례(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)

본 연구는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의 척추골절 유무에 따른 신체적 기능수준과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.

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였으며,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골밀도 검사를 받은 폐경 후 1년 이상된 여성 202명(정상군 : 52명, 골감소군 : 54명, 비골절 골다공증군 : 41명, 골절 골다공증군 : 55명)이었다.

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Silverman 등(1993)이 개발한 골다공증 사정 질문지(OPAQ ; Osteoporosis Assessment Questionnaire)이었다.

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-square test, ANOVA, Scheffé test, ANCOVA,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적용하였다.

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체적 기능수준은 '움직임' , '걷기와 구부리기' , '서있기와 앉기' , '웃입기와 팔 뻗기' , '이동' , '자가관리' , '가사일' 로 구성되었다. 신체적 기능수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정상군, 골감소군, 비골절 골다공증군 모두 4.0점으로 세 군간 차이가 없는 반면, 골절 골다공증군은 3.1점으로 다른 세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( $F=42.1$ ,  $P=0.0001$ ).

2. 심리적 안녕감은 '낙상에 대한 두려움' , '긴장감' , '기분' , '신체상' , '독립심' ,

'만족감' 으로 구성되었다. 심리적 안녕감의 평점은 5점 만점에 정상군, 골감소군, 비골절 골다공증군 모두 3.5점으로 세 군간 차이가 없는 반면, 골절 골다공증군은 3.0점으로 다른 세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( $F=13.2$ ,  $P=0.0001$ ).

3. 주관적 증상은 '요통' , '수면' , '피로감' 으로 구성되었다. 주관적 증상의 평점은 5점 만점에 정상군, 골감소군 각각 2.7점, 비골절 골다공증군 2.8점으로 세 군간에 차이가 없는 반면, 골절 골다공증군은 3.1점으로 다른 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( $F=9.2$ ,  $P=0.0001$ ).

4. 신체적 기능수준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나( $r=0.8$ ,  $P=0.0001$ ), 주관적 증상과는 역 상관관계( $r=-0.6$ ,  $P=0.0001$ )를 나타냈고, 심리적 안녕감도 주관적 증상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( $r=-0.7$ ,  $P=0.0001$ ).

이상의 결과에서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의 신체적 기능수준, 심리적 안녕감, 주관적 증상은 골절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, 또한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. 따라서 중년여성에서 골다공증 및 척추 골절 예방을 위한 중재가 중요하며 특히 걷기와 구부리기, 서있기와 앉기, 이동, 신체상 및 요통에 중점을 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.